

건설정책 및 제도 혁신 지원 협의

일 시

2020년 5월 22일 (금) 14:00 ~ 16:00

장 소

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관지현

참석자

국토교통부: 이성해 건설정책국장,
장순재 기술정책과장, 박명주 건설기준과장,
김상수 사무관, 백도준 사무관

건설환경종합연구소: 이현수 소장, 이복남
산학협력중점교수, 이슬기 책임연구원,
신승우 선임연구원



01 모임 배경 및 목적

- 급변하는 국내외 건설환경에 대한 이해
- 한국건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정책의 향후 방향성 설정을 위해 서울대학교 및 건설환경종합연구소의 경험과 지식, 인적 자원 활용과 지원 방향 설정
- 급부상하고 있는 융합기술을 국내 건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제도 혁신 과제 협의
- 국내 건설의 국내 및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기반 기술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 협의
- 국토부의 건설정책과 제도 수립에 건설환경종합연구소가 지원 가능한 분야와 형식 협의 등

02 1차 Agenda 및 핵심 요약

Agenda 1 (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이슈와 건설)

-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환경이 건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
- 기후변화가 산업과 시장에 미치는 파급 영향
- 융합기술이 건설기술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 영향
-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건설환경에 미치는 파급 영향
- 한국건설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진로 선택 등

Agenda 2 (엔지니어링 기술저작권)

- 지식기반 저작권 의미와 BIM 활용 및 확대가 엔지니어링 기술저작에 미치는 파급 영향과 국내 현실
- 국내 엔지니어링 기술발전 경로와 기술 수준 현안
- 엔지니어링 기술저작권에 대한 기재부의 용역계약 일반조건이 기술에 미친 파급영향과 나타난 결과
- 저작권에 관한 용역계약일반조건과 국제표준계약(FIDIC) 및 국토부의 건축물 설계표준계약서 약관과 비교
- 디지털 융합시대 생존을 위한 5대 혁신 과제 제안 등

Agenda 3 (건설기술자 역량)

-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국내 건설기술자의 역량 수준과 현안
- 건설기술자 역량과 국내 기술자 경력관리제도의 한계 및 현안
- 글로벌 건설기업의 역량 평가 및 인재양성체계와 대규모 국제프로젝트에서 기술자 역량 평가 모델 사례
- 한국의 기술 인적자원의 중요도 변화 과정과 과기부가 발표한 국가기술혁신체계 2.0(20.2.6.)에 나타난 정부의 인적역량 강화 변화
- 국내 건설기술자의 글로벌 인재양성 구상과 직무역량 평가 체계 혁신 방안(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)
- 글로벌 기술자 역량평가체계 구축 구상 및 개념 설계 기반 수요자 요구 충족 가능성 확인을 위한 PECAP의 ‘pilot test’ 프로그램 시현

Agenda 4 (한국건설 2040 비전과 목표)

- 국토부가 외부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수행 중인 ‘2040 비전과 목표’ 개발 과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과제
- 국내에서 분산된 기관에서 각자 개발 중인 비전과 전략 개발 과제를 국토부가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
- 비전과 목표에 담아야 할 주요 내용
-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과제와 산·학·연·관의 역할 분담과

미국의 국가건설 목표 및 역할 분담 사례

- 전략 실행 계획(roadmap)에 담겨야 할 필수 과제 등

Agenda 5 (기타)

- 국내 건설생산 구조 개편에 따른 ‘주력분야 공시제’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설분류(facility classification) 체계와 공종분류(commodity code) 조합을 통해 건설정보시스템(KISCON) 고도화 방안
- 제도적으로 도입된 ‘근로자카드제’를 활용하여 ‘기능인 등급제’, ‘페이퍼 컴퍼니’, ‘불법·편법 하도급’ 예방 활용 및 직접시공의 실효성 제고 방안
- 근로자카드제 기반 ‘공사현장 출입구관리시스템(gate keeper system, 가칭)’ 개발 및 활용 가능성
- 근로자가 포함된 건설현장 출입자 관리가 실명제로 전환 됨에 따라 기존의 공사실명제보다 훨씬 정밀한 ‘작업실명제’ 도입 기반이 마련되어 향후 활용 가능성 제고 등

03 주요 논의 내용

엔지니어링 기술저작권

- 선진국일수록 엔지니어링 기술저작권을 보호하는 추세와 국내 기술저작권의 글로벌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공감
- 기재부가 2020년 5월 17일 공공기관과 업계,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「민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 TF」에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‘용역계약 일반조건’ 개정을 요청하기로 함

기술자 역량의 글로벌화를 위한 혁신

- 기존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제도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
- 성장 한계에 다다른 내수시장의 한계를 글로벌시장 확대로 대체해야 하며 전제 조건으로 국내 건설기술자 역량의 글로벌화 필요성에 공감
-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가 개발 중인 「가칭, 기술자의 직무역량평가시스템(PECAP)」의 수용성과 가치를 공감하고 국토부가 정책적으로 지원 가능한 분야는 협조하기로 함
- PECAP의 활용 가능성 검증을 위해 국토부 차원에서 협조가 가능한 분야부터 실행에 옮기기로 함

직무분류(job classification) 및 설비분류(facility classification)체계 활용

- 국내 건설기술과 기술자의 직무역량 혁신을 위한 시장(market)과 사업(project) 중심의 체계적인 분류체계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
- 건설환경종합연구소가 2020년 중 완성 계획인 직무분류와

설비분류를 국토부가 활용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

- 정부가 위탁하여 관리 중인 건설산업 정보관리체계(KISCON) DB 고도화를 위해 계약실적을 설비분류와 공종분류코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기로 함

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와 협력

- 건설환경종합연구소가 보유한 객관적 위상과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잠재 역량을 확인
- 건설의 국가 및 산업적 현안 이슈는 물론 미래 정책 방향 설정 등에 국토부와 종합연구소가 상호 보탬이 될 수 있는 여지를 확인

04 향후 계획

- 국토부 건설정책국과 건설환경종합연구소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향에서 현안 및 미래 정책 방향 이슈에 대해 수시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로 함
- 국토부 건설정책과 제도관련 현안 이슈를 수시로 협의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검토하기로 함
- 필요에 따라 수시로 건설환경종합연구소가 보유한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활용 할 수 있는 협의를 가지기로 함
- 1차 협의에서 결정된 사항(엔지니어링 기술 저작권, 기술자 역량체계 혁신 등)은 즉시 실행에 옮기기로 함인

05 배포자료

건설정책 및 제도 혁신 협의 자료(설명자료)와 건설종합연구소의 발간 자료 7건 제공

- VOICE 제21호, 코로나 팬데믹과 건설 (2020.5.30 발간 예정)
- VOICE 제20호, 디지털 융합시대 생존을 위한 ‘설계엔지니어링’ 역할 바로 세우기 (2020.4.20)
- 직무분류체계, 시설물분류체계, 표준사업조직도(예시), 경력증명서 변환(예시)
- 토론티 제12호, 한국건설기술인 글로벌경쟁력 제고 전략 (2020.3.12.)
- 국토와건설진단 제10호, 생산구조혁신의 성공을 위한 직접시공제의 법/제도 방향 및 산업계 대응전략 (2020.3.27.)
- 국토와건설진단지11호, 건설현장관리의 디지털화를 위한 작업실명제도입 방안 (가제) (2020.7 발간 예정)
- VOICE 제09호, First Mover가 되기 위한 건설기술 거버넌스 변화 (2017.5.8)